

# 부처·제자의 문답 속에 眞儀가 담겨있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 14. 교리문답

**붓다와 문답**  
붓다는 자주 문답으로써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대조(對照)를 이루고 있으며 소크라테스와 심히 비슷한 점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수는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인도(引導)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신념에 의해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람들 앞에 던지면서 갑작스럽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한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구제본한 문답은 당연히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을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붓다도 또 소크라테스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인도되며 가르침을 받았으며, 납득하였으며, 신념이 생겨났으며, 그리고 실천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붓다 설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답이 자주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

다시 새롭게 지적하여 두고 싶은 것은 이 스승의 많은 문답 가운데는 소위 카테키즘(catechism=교리문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카테키즘이란 원래 기독교의 용어로서 문답식으로 정리된 교의(敎義)의 요약(要約)이며 안수례(按手禮)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것을 암기(暗記)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요리문답(要理問答)’라고 말하며 공적교의(公的敎義)의 교본으로 삼고 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카테키즘은 없다고 생각되어 왔다. 또 불교에도 카테키즘이 있었으면 하면서 그것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 붓다의 문답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붓다는 생각하는 방법의 기본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답식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붓다의 가르침은 예수의 그것과는 종교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인생의 지엽말절(枝葉末節)에까지 이르는 것을 한 가지 생각의 방법 테두리 안에 집어 넣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에 적합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히려 인생의 이해와 실천의 근본을 확립하여 융통자재(融通自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본령(本領)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말절지엽(末節枝葉)에 이르는 사소한 규정은 이 길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본령(本領)을 손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해와 실천의 근본을 명백하게 규정하며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붓다도 또한 자주 같은 논

리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여러번 제자들 비구에게 물으며 대답하게 하며, 거기에 저절로 카테키즘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 문답식(問答式)의 예

이러한 문답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와 연결되는 개념의 설명이다. 한역(漢譯)의 <잡아함경(雜阿含經)> 및 남전(南傳)의 상응부경전(相應部經)에 있어서는 수십번씩이나 이 문답이 붓다와 그 제자들 사이에 반복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상응부경전의 <운상응(蘊相應)>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경은, 이 문답식을 언제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色)(물질)은 상(常)(변화 없는 것)일까 무상(無常)(변화 있는 것)일까?”

“대덕(大德)이여, 그것은 무상입니다.”

“대개 색이 무상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고(苦)일까, 낙(樂)일까?”

“대덕이여, 그것은 고(苦)입니다.”

“대개 색(물질과 모습)이 무상하며 고(苦)한 것과, 변화며 옮겨지는 것을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나다. 그것은 내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대덕이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이와 비슷한 문답식은 수(受)(느낌)에 관해서, 상(想)(표상)에 관해서 행(行)(의지)에 관해서 그리고 또 식(識)(의식)에 관해서 반복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같은 상응부경전의 <육처상응(六處相應)>이란 이름의 경 가운데는 같은 문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眼)은 상주(常主)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일까?”

“대덕이여, 그것은 무상입니다.”

“대개 사물의 무상함은 그것이 고(苦)일까? 그렇지 않으면 낙(樂)일까?”

“대덕이여, 그것은 고(苦)입니다.”

“대개 사물이 무상하며 고(苦)하며 변화하는 것을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나다. 그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릇된 일인가?”

“대덕이여,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또 귀, 코, 혀, 몸, 뜻에 관해서도 같은 문답식이 반복되고 있다.

### 그 해석(解釋)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석존 가르침의 가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도상. 부처님은 제자와 문답을 통해서도 가르침의 진의를 전했다.

깊은 바탕을 보여주는 것은 연기(緣起)의 세계관이다. 모든 존재는 관계성(關係性) 속에 있으며 상의성(相依性)의 것으로서 존재하며 ‘연(緣)하여 생기며 연(緣)하여 멸한다’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한 사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며, 한 사건이 여기에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이 생기며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토대에 서면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없으며 다만 생성(生成)과 소멸(消滅)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표현하는 불교의 술어는 간단명료하게 무상(無常)—모든 것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기의 세계관을 단순한 지식으로써 수지(受持)하며 단순한 체계로써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써 이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상의 원리는 소위 몸에 밀착(密着)한 것이 되며 세포(細胞)에 까지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이러한 이해가 능히 우리들의 인생관과 바탕으로서 작동하며 감정에 반영되며 의지(意志)를 발동(發動)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를 끊임없이 인사(人事)의 구체적 사례(事例)에 맞추어서 음미(吟味)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生)에 맞추어서 음미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들의 신체 혹은 소유(所有)를

구성하는 물질적 원리(색)에 관해서 그런 것들은 늘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無常)한 것인가를 물어본다. 물론 거기에는 무상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도대체 자기에게 있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물어본다. 무상한 도리를 자기에게 밀착시켜 보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좋은 것이 아니다. 유쾌한 것이 아니다. 즉 고(苦)의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곧 변화하여 사람의 소망을 배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소망을 배반하며 소망에 반대되는 것은 고(苦)일 수밖에 없다.

붓다는 이렇게 사유(思惟)하면서 집착이 없는 자유로우며 평화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제자인 비구들에게 물으면서 형식에 따라 대답하게 하였다. 그 제재(題材)는, 어떤 때에는 앞에서 본 첫 번째의 예처럼, 오온(五蘊) 즉 인생을 구성하는 물질적 원리(색)와 정신적 원리(수, 상, 행, 식)의 총체(總體)였다. 또 어떤 때에는 앞에서 본 두 번째의 예처럼 육처(六處) 즉 우리들의 감각(感官)과 그 대상이었다. 그리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한(限), 붓다의 제자들은 모두 스승의 물음에 대해서 능히 형식에 따라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 시방에 두루한다는 의미는?

**문**

불교에서 시식(施食)하여 밥 일곱 알로 시방(十方)에 두루한다는 말은 사리(事理)가 황당(荒唐)하여 더욱 유자가 구태여 믿지를 않는다. 또 신주가 지법(神呪加持法)의 일이란 것이 또한 반드시 삼편(三遍)·칠편(七遍)·사십구 편(四十九遍)으로 한계를 삼는데, 이는 또 무엇 때문인가

**답**

간략히 세 번을 하는 것은 삼재(三才)의 수(數)이다. 삼재가 갖추어 야 만물이 발생하는데, 이는 ‘작은 변화’이다. 중간으로 일곱 번 하는 것은 칠요(七曜)의 수이다. 칠요가 갖추어야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중간의 변화’이다. 갖추어서 마흔 아홉 번을 하는 것은 천지의 수이다. 천지가 제 위치를 해야만 조화가 다함이 없는데, 이는 ‘큰 변화’이다.

또 천지의 수가 오십 오(五十五)인데 그 다섯을 제거하는 것은 그 어버이를 존송함이고, 그 하나를 비우는 것은 그

같다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도 또한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공덕의 발생함을 이루 해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선근(善根)을 받든다면 무슨 죄인들 소멸하지 않으며, 어떤 본인들이 이르지 않으며, 무엇을 구한들 이루지 못하며, 어떤 것을 원한들 성립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로써 왕생(往生)을 천도하면 가를 자가 청정하게 오르고, 이로써 삶을 보존한다면 살아 있는 자는 강영(康寧)하고, 이로써 복을 구한다면 복해(福海)가 더욱 깊어지며, 이로써 수명을 구한다면 수산(壽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또한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자연의 이치이니 괴이할 게 없는 것이다.

하늘에 칠정(七政)이 있는 것은 하늘이 이 수(數)를 쓰기 때문이고, 땅에 칠귀(七鬼)가 있는 것은 땅이 이 수를 쓰기 때문이며, 부처님에 칠불(七佛)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 이 수를 쓰기 때문이며, 주문(呪文)에 칠 편(七遍)을 쓰는 것은

## 부처님의 가피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 주린 자는 배부름을, 괴로운 자는 휴식을 얻는다

임금을 존송함이다. 사십구 수(四十九數)가 변화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건곤의 위대한 작용으로 부처님의 묘용(妙用)이니, 위에서 이른바 「체(體)는 곧 태극(太極)이고, 용(用)은 건곤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하늘은 그것을 얻어 삼라(森羅)의 변화가 다함이 없고, 땅은 그것을 얻어 만물의 변화가 다함이 없으며 성인은 그것을 얻어 역도(易道)의 변화가 다함이 없다.

모든 부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신분의 변화가 다함이 없으며, 주술(呪術)의 변화가 다함이 없으니, 주재하는 자는 비록 다르나 위대한 작용에 있어서는 곧 하나이다.

그러므로 적게는 일곱 알의 미미함에 이르고, 크게는 마흔 아홉 섬에 이르러 조물(造物)을 잡고 변화하며, 심량(心量)을 응하여 다함이 없이 시방의 모든 세계 군생(群生)의 앞에 두루한다.

그러하여 주린 자는 배부름을 얻고, 배고픈 자는 음식을 얻으며,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얻고, 헐벗은 자는 옷을 얻으며, 수고로운 자는 쉬를 얻고, 괴로운 자는 휴식을 얻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큰 보시가 허공을 다하고 법계를 두루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음이다.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이 이미 저와

또한 이 수에 합한 것이다. 이는 곧 천하의 대통수(大通數)며 변화의 기미니, 무엇이 다함이 있었는가

**문**

지금 부처를 배우는 자는 반드시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삼는데, 정·혜의 의논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답**

다르지 않다. 과(果)에 있어서는 정혜(定慧)라 말하고, 인(因)에 있어서는 지관(止觀)이라 말하는데, 지관이란 곧 화두를 참구하는 법이다.

화두 참구하는 것은 하나로 제접(提接)함으로써 초보(初步)를 삼고, 전제로 제접함으로써 자량(資糧)을 삼는다. 자량은 걸음을 걷는 밑천이 되고, 걸음을 걷는 것은 자량의 효과니, 두 가지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그 이를 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로 제접한다는 것은 하나로서 만가지를 제입함을 말함이니, 지(止)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전제로 제접한다는 것은 의심을 일으켜 참구함을 말함이니, 관(觀)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 묘법연화경

#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축류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CD08-제16, 여래수왕품(21:15)	제23, 악왕보살보살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경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살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리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자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보살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인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보살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상